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4월 19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요 11:17-27, 38-44

제목 : 부활의 신앙 · 승리하는 성도(3)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냐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 보통으로 기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운동선수가 상대방과 시합을 할 때 전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다들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울먹이면서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런데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답을 하실 수가 있는가요?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영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영광>의 헬라어는 <독사(doxa)>입니다. <좋은 평판> <명예> <영광>이라는 의미로 신약시대에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카보드(kabod)>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보드>란 말은 <무거움>, <무게>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무거운 쇠붙이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한자어로 풀이하면 영(榮)은 꽃피어날 영이고 광(光)은 빛날 광입니다. 빛을 받아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들은 빛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치가 자연의 꽃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내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을 하면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41절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은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평판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니 이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즉 감사와 찬미를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답은 4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핵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믿고 말기다> <의지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조건 없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말을 믿어야 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의 말이 아무리 달변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주님의 말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25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신 것일까요?

본문 속의 나오는 마르다의 가정에는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이고 마리아는

여동생이고 나사로는 남동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매의 부모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를 일찍 잃은 자들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쯤말로 하면 소년소녀만 있는 가정이고 마르다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는 가문을 이어갈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몸이 약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요11장의 핵심은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나사로가 병 들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11:1-4을 보겠습니다.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각 절마다 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절에 "병자가 있었으니"의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입니다. 병이 진행 중이었음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병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앓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한지 4일이 지났습니다. 참 슬픈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두 자매의 성격의 다른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 빨리 오지 않고 늦게 오셨나요?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또 대답합니다.

요11:24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에 무엇이 문제인 것을 아시겠지요? 계속 마르다는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안다>는 헬라어 단어는 <외적인 사물의 형태들을 눈으로 보아서 인식하는 것, 또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성경은 <know>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산다는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나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르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마르다와 주님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25-27입니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주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마르다의 입에서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고통의 현장에 마르다가 기대했던 시간 보다 늦게 오더라도 그래서 동생은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 일로 마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가나에서 주님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헬라어 동사의 태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전 예부터 계속해서 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그리고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가나에 왔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 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니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요4:47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주님은 이 간청에 책망의 투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분봉왕(헤롯안티파스)의 신하가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민족 앞에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간청했는데 거부당하는 것도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선천적으로 남에게 구걸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차라리 굶어 죽었지 구걸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겸손함을 보신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요4:50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곳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보입니다. 34km나 떨어진 곳에 자식은 죽어 가는 데 과연 살 수 있을 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그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4:51-52입니다. “51.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52. 그 낮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주님의 기적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3.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 믿어야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시신을 뉘인 무덤은 굴이었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이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11:39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당시의 민간 신앙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소망 때문에 3일간 무덤 주위를 방황하지만 4일째는 그곳을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지 나흘째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민간 신앙이기에 주님도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고 4일이 되면 시체가 부패가 되어 더 이상 얼굴을 알아 보기가 힘들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동사는 <3인칭 단수 현재시제>입니다. <그 남자의 시신에서 지금 계속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을 옮겨도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늦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르다의 믿음이 자세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보다는 자신의 견해가 생각이 자신이 믿어 왔던 것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에게서 우리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돌을 옮기라고 명령한 주님의 말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마르다의 말을 우리는 “초를 치고 있네, 정말 김이 새는 말하네.” 라고 합니다. 정말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아마 주님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한 말을 상기 시킵니다. 11:40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을 하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신이 있는 무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행할 수가 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싸였습니다.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그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가도록 내버려두라.”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고 다녔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를 요11:45-46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묶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는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이 코로나19에서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한 말이 저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00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